■ 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59-478.
http://doi.org/10.17948/kcs.2021..91.459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계산담론(鷄山談論)』·『계산담수(鷄山談藪)』 해제*

권진옥(權津鈺)**

1. 머리말

『계산담론(鷄山談論)』과 『계산담수(鷄山談藪)』는 조선 말의 학자인 송내희(宋來熙, 1791-1867)가 편술(編述)한 필기야담집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1]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송내희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자칠(子七), 호는 금곡(錦谷)이다. 군수 송계정(宋啓楨)의 아들이다. 1838년(헌종4) 경연관에 임명되어 이후 장령·집의 등을 거쳐 뛰어난 학행을 인정받아 1853년(철종4)에 성균관 좨주에 천거되었다. 부호군을 거쳐 1857년부터 10년 가까이 대사헌을 여러 차례 지내고, 뒤에 찬선에 이르렀다. 문집으로는 『금곡집(錦谷集)』이 있다.

『계산담론』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의 필사본이 유일본이고, 『계산담수』는 국외의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과 국내의 영남대학교에 각각 필사본 1종씩 소장되어 있으므로, 『계산담론』과 『계산담수』는 희

---

*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계산담론(鷄山談論)』과 『계산담수(鷄山談藪)』 해제, 그리고 「19세기 필기야담집 『계산담론(鷄山談論)』·『계산담수(鷄山談藪)』의 성격과 가치」, 『고전과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0을 토대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鷄山談論』과 『鷄山談藪』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역사적 인물에 대해 특기할 만한 記事,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지은 詩文에 대한 비평, 지방의 명소와 산천의 소개, 행정 구역 변천사, 임진왜란 관련 기사, 중국어와 자국어의 비교, 몽고어와 만주어 풀이, 병의 치료, 朝貢의 문제, 田制의 문제, 國防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식정보라 통칭하였다.

귀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2]

『계산담론』과 『계산담수』는 저술의 성격상 크게는 필기류에 속하고 저술된 시기는 19세기로 볼 수 있는데, 필기류 저작은 저자의 체험과 교양, 관심의 방향에 따라 지식 정보를 모아놓은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DB화」 과제[3]와 같은 경우는 19세기 필기류 저작에 수록된 지식정보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대상 자료의 취사선택 과정에서 『계산담론』과 『계산담수』는 누락되어 있다.[4] 또한 필기야담의 문학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버클리대본 『계산담론』과 『계산담수』가 소개되지 않고 『계산담수』의 존재는 오직 영남대학교 소장본(이하 '영남대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지고,[5] 이 책에 대한 논의도 야담집의 하나로 그 서명(書名)만 소개되거나 혹은 서문이나 발문을 지닌 희귀한 야담집이라는 언급에만 머물고 있다.[6]

---

2)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鷄山談論』과 『鷄山談藪』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kostma.korea.ac.kr(2021.3.31. 검색).

3)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DB화」 (연구책임자: 김명호, 연구기간: 2007.8.1.-200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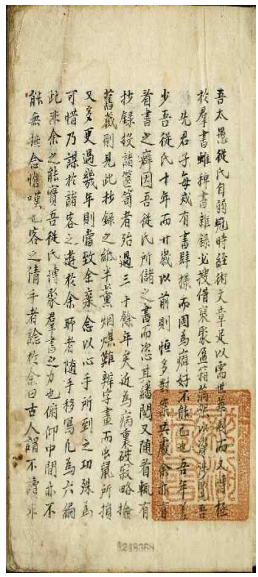
4) 이 연구 과제는 총 52종의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였고, 문헌 해제와 함께 지식정보로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색인어와 출전을 정리하였다. 김명호 외,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학자원, 2011.

5) 정명기 편, 『韓國野談資料集成 9』, 계명문화사, 1987. 이 책에 수록된 『鷄山談藪』는 영남대학교 소장본을 底本으로 영인한 것이다.

6) 〈야담 자료 목록〉 총 67종 가운데 유일본으로 『鷄山談藪』가 소개되어 있다. 정명기, 『한국 야담의 자료와 전승』, 보고사, 2019, 47면.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야담집 가운데 서문 또는 발문을 지닌 야담집은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於于野譚』, 소창진평본 『靑邱野談』, 『東野彙輯』, 『錦溪筆談』, 『鷄山談藪』 등을 들 수 있고, 일제강점기에 나온 것 가운데는 『東廂記纂』, 『逸士遺事』, 『大東奇聞』 등을 들 수 있을 뿐, 대부분 야담집의 경우 그 서문이나 발문이 남아있지 않다. 정명기, 『한국 야담의 자료와 전승』, 보고사, 2019, 82면.



〈그림 1〉 버클리대본『계산담수』 서문(02)



〈그림 2〉 버클리대본『계산담수』 서문(01)



〈그림 3〉 버클리대본『계산담수』 건책(乾冊) 표지

『계산담수』의 저작자를 송내희로 확정하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계산담수』를 송내희의 저작으로 본 것은「『계산담수』에 쓰다[題鷄山談藪]」라는 글에서 연유한다.[7] 이 글은 버클리대본『계산담수』와 영남대본『계산담수』에 수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송내희의 문집인『금곡집(錦谷集)』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 글은 수록된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금곡집』권11에 수록된 이 글은 "이로 인하여 그 시말을 대략 서술하고 겸하여 끄트머리에 객의 말을 붙인다.[因略敍始末, 兼次客語於卷端云爾.]"로 끝나지만,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은 그 뒤에 "때는 숭정(崇禎) 후 네 번째 병오년(1846, 헌종12) 늦여름에 만졸하사(晩拙下士)가 유양(酉陽)의 오동나무 그늘 작은 집에서 쓰다.[時崇禎後四丙午季夏, 晩拙下士書于酉陽之桐陰小軒.]"[8]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9] 또한 글이 수록된 위치도 버클리대본은『계산담수』의

7) 〈그림 1〉과 〈그림 2〉 참조
8) 영남대본은 '時'의 古字인 '㫐'로 되어 있다.

표지와 권1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서문의 자리에, 영남대본은 520조목인 '이수기(李修己)'의 기사와 522조목인 '이항(李恒)'의 기사 사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송내희의 문집인 『금곡집』에 자서(自序)의 성격으로 지은 「『계산담수』에 쓰다」가 수록되어 있는 점, 실제 『계산담수』의 책에도 이 글이 똑같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송내희의 저작으로 확정한 것이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이러한 근거에 덧붙여 첨언할 내용이 있다. 우선 『금곡집』 소재 「『계산담수』에 쓰다」라는 글은 제목과 내용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병오년인 1846년에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곡집』의 편집 체제는 창작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계산담수』에 쓰다」 바로 앞의 글인 「정공(鄭公)【봉로(鳳鏕)】의 행록 뒤에 쓰다【병오년】[行錄書鄭公【鳳鏕】行錄後【丙午】]」가 병오년(1846)에 지어졌고, 바로 뒤의 글인 「「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 뒤에 쓰다【정미년】[高山九曲圖後叙【丁未】]」가 정미년(1847)에 지어졌다. 문집을 편집하면서 창작 연도를 부기할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도에 지은 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앞의 글 하나에만 기록하고 창작 연도가 바뀔 때만 다시 연도를 기록한다. 이를 감안하면 『금곡집』 소재 「『계산담수』에 쓰다」가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처럼 연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글을 지은 시기가 똑같이 1846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에만 보이는 '만졸하사(晩拙下士)'와 '유양(酉陽)'에 대한 해명이다. 송내희의 호는 '금곡(錦谷)' 혹은 '동곡(桐谷)'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곡'은 금산(錦山)의 지명이고 '금곡'은 금산의 동곡을 줄인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호를 그가 사용한 시기는 1855년(철종6) 65세의 나이에 금산(錦山)의 동곡(桐谷)으로 이거(移居)한 이후이다. 실제로 『금곡집』을 살펴보면, '금곡노부(錦谷老夫)', '금곡병부(錦谷病夫)', '금곡옹(錦谷翁)', '금곡칠십옹(錦谷七十翁)' 등으로 자칭(自稱)한 경우는, 1855년부터 동곡(桐谷)의 첨모헌(瞻慕軒)에서 세상을 떠난 1867년(고종4)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9) 〈그림 1〉 맨 끝부분 참조

로 1855년 이전에 그가 살았던 곳을 차례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791년(정조15) 공주(公州) 평기촌(坪基村) 외가에서 출생하였고, 1799년(정조23) 9세 때 회덕(懷德)의 송촌(宋村)에서 몇 리 떨어진 구봉촌(九峰村)으로 이사하고, 이후 1805년(순조5) 15세 때 구봉촌에서 동남쪽으로 2리 떨어진 용전리(龍田里) 이사하였다.[10] 중간에 서울에서 관직을 잠깐 역임하거나, 황간 현감(黃澗縣監)(1837년)과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1838년)에 제수되어 다른 지방에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1855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덕의 용전리에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산담수』에 쓰다」라는 글이 지어진 1846년 이전에는 송내희가 '금곡' 혹은 '동곡'이라는 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즈음 대부분 회덕의 용전리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졸하사(晩拙下士)'는 그가 당시에 사용하던 겸칭이고, '유양(酉陽)'은 자신이 살던 곳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만졸(晩拙)'과 '하사(下士)'는 별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족한 사람이 만년에 자신을 수양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소식(蘇軾)의 시 「가난한 집에서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다[貧家淨掃地]」에서 "모자라는 선비가 만년에 도(道)를 듣고서, 애오라지 졸(拙)로 자신을 수양한다.[下士晩聞道, 聊以拙自修.]"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로 이 시구에서 의미를 취하여 '하사(下士)', '만졸(晩拙)', '졸수(拙修)' 등의 용어를 선비들이 흔히 겸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송내희 역시 다른 선비들처럼 이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양(酉陽)'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계룡산(鷄龍山)의 남쪽 기슭을 의미하는 것 같다.[11] '유(酉)'는 계룡산을 뜻하고[12] '양(陽)'은 산의 남쪽을 의미하니 바로 송내희가 당시에 살았던 회덕 일대를 가리킨다. 게다가 『계산담수』의 '계산(鷄山)'은 곧 계룡산을 지칭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10) 버클리대본 『鷄山談藪』에는 '龍湖藏書'라는 藏書印이 있다. 또한 버클리대본 『鷄山談論』에도 '金然昌印'이라는 藏書印이 있고, "檀紀四二九四年(1961)五月二十日 高麗大學校大學院生 生物學硏究生金然昌氏로 引受된 書冊이라 華山李聖儀謹書"라는 藏書記가 있다. 이 가운데 '龍湖'라는 지명은 1855년 이전까지 송내희가 거주했던 '龍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11) 1834년(순조34)에 송내희가 지은 「桐隱序」의 서두가 "余卜居鷄山之南"으로 시작한다.

12) '酉山'이 '鷄山'(계룡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송내희가 살던 환경을 고려하면 장서가 많은 곳을 뜻하는 大酉山과 小酉山의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끝으로 '만졸하사(晩拙下士)'가 송내희라는 것은 필사된 형태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에 수록된 「『계산담수』에 쓰다」의 내용 가운데, "나의 선군자께서[吾先君子]"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이곳을 확인하면 "吾"와 "先君子" 사이를 격일자(隔一字)하여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13] 글의 앞뒤 맥락상 '선군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송내희의 부친인 송계정(宋啓楨)이므로 '나'에 해당하는 인물은 송내희가 자명하다. 그런데 『금곡집』에 수록된 이 글에는 해당 부분을 격일자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사본 형태의 『계산담수』는 송내희의 친필본이거나 적어도 송내희와 매우 가까운 친척의 필사본일 가능성이 크다.

2. 『계산담론(鷄山談論)』·『계산담수(鷄山談藪)』의 편술 배경

『계산담론』은 『계산담수』가 완성되기 5년 전인 1841년(헌종7)에 초고본 형태로 완성한 책이고,[14] 그 이후에 『계산담론』을 토대로 6권2책의 완정한 형태인 『계산담수』를 만들었다. 『계산담수』의 저술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보다도 송내희 자신이 이 책에 대해 쓴 서문이다. 「『계산담수』에 쓰다[題鷄山談藪]」라는 글은 자신의 책이기 때문에 겸사로 제발(題跋)을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은 서문이다.

> 우리 태우(太愚) 종씨(從氏)는 약관 때부터 경술과 문장이 세상에 쓰이고 나라를 빛낼 만하였으며, 또한 여러 책을 섭렵하여 비록 패서(稗書)와 잡록(雜錄)이라도 반드시 찾거나 빌려서 한데 모아 상자와 서가를 가득 채워 두루 열람할 자료로 삼았다. 우리 선군자께서 매번 책가게 꼴이 될까 경계하였으나, 본디 지독한 버릇이 되었기에 그만두지 못하였다. 나는 종씨보다 나이가 십 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세 이전에는 책상을 마주하며 함께 거처한 날이 많았다. 나 또한 책을 보는 버릇이 있어 우리 종씨가 간직한 책을 가지고 열람할 거리로 삼았으며, 또

13) 〈그림 2〉 앞부분 참조

14) 『鷄山談論』은 不分卷 1冊의 필사본이고 총 18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맨 끝에는 "辛丑三月十七日廣州下道乾乾洞精舍題畢"이라는 필사기가 보이는데, 신축년은 1841년이다. 권진옥, 「『鷄山談論』 해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Z.1841.4161-20090728.RICH_0483(2021.3.31. 검색) 참조.

> 책을 보면서 그때그때 초록하여 상자에 넣어두었으니 거의 삼십여 년이 지났다. 근래 병을 앓는 가운데 무료함을 달래려고 옛날의 상자를 살펴보니, 이 초록한 종이가 절반은 불에 그을려 자획을 분별하기 어렵고 벌레와 쥐가 파먹은 것이 또 많아 다시 몇 년 만 지나면 모두 버려야 될 판이었다. 마음을 쏟고 손을 대었던 공을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워 이에 나의 거처에서 노닐던 손님들과 모의하여 손이 가는 대로 옮겨 베꼈더니 모두 6편이 되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실로 우리 종씨가 여러 책을 섭렵한 덕분이다.15)

글의 시작은 송내희의 집안 형 송명희(宋命熙, 1781-1833)에 대한 얘기이다. 송명희는 자가 응순(應順)이고 호가 태우(太愚)인데, 경술(經術)과 문장(文章)으로 나라에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또한 송내희와는 친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사이였다. 젊어서는 책상을 마주하며 함께 공부하였다는 송내희의 언급이 있고, 송내희가 30세가 된 이후에는 안심사(安心寺), 옥계동(玉溪洞), 대둔산(大芚山) 등을 함께 유람한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돈독한 관계로 인해 송내희는 그가 1833년(순조33)에 세상을 떠나자 1835년(헌종1)에는 「종형 직장공을 위한 제문[祭從兄直長公文]」, 1846년(헌종12)에는 「종형 직장공의 천장에 쓴 제문[祭從兄直長公遷葬文]」, 1863년(철종14)에는 「종형 직장공을 위한 묘갈[從兄直長公墓碣]」을 짓는 등 송명희 사후에도 오랫동안 추모의 정을 이어갔다. 송내희는 젊은 시절 주로 부친에게 수학하였는데, 이러한 송명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부친뿐만 아니라 그에게서도 적잖게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가면, 송명희는 일반적인 경전(經傳), 사서(史書), 제자서(諸子書)를 비롯하여 패서(稗書)나 잡록(雜錄)이라도 반드시 찾거나 빌려서 보관할 만큼 장서(藏書)에 지독한 벽(癖)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송명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송내희는 그때를 회고하며 "나 또한 책을 보는 버

15) 宋來熙, 「題鷄山談藪」, 『錦谷集』 권11. "吾太愚從氏, 自弱冠時, 經術文章, 足以需世華國, 而又博極於羣書, 雖稗書雜錄, 必搜借裒聚, 盈箱滿架, 以資涉覽. 吾先君子每戒有書肆樣, 而固爲癖好, 不能已也. 吾年差少吾從氏十年, 而卄歲以前, 則恒多對案共處. 余亦有看書之癖, 因吾從氏所儲之書而資其繙閱, 又隨看輒有抄錄, 投諸篋笥者, 殆過三十餘年矣. 近爲病裏破寂, 略撿舊藏, 則見此抄錄之紙, 半薰烟煤, 難辨字畫, 而虫鼠所損又多, 更過幾年, 則當致全棄. 念以心手所到之功, 殊爲可惜, 乃謀於諸客之遊於余所者, 隨手移寫, 凡爲六編. 此非余之能, 實吾從氏博聚羣書之力也."

릇이 있어 우리 종씨가 간직한 책을 가지고 열람할 거리로 삼았으며, 또 책을 보면서 그때그때 초록하여 상자에 넣어두었으니 거의 삼십여 년이 지났다.[余亦有看書之癖, 因吾從氏所儲之書而資其繙閱, 又隨看輒有抄錄, 投諸篋笥者, 殆過三十餘年矣.]"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삼십여 년이 지난 1841년에 우연히 옛날의 책 상자를 살펴보다가 그때 초록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한 차례 정리한 것이 바로 『계산담론』이다. 이후 5년 동안 다시 정리하여 1846년에 6권2책의 『계산담수』를 완성하였는데, 공교롭게도 1846년은 송명희의 묘를 이장(移葬)한 해이기도 하다. 애초에 송명희와 함께 수학하면서 그의 장서를 통해 틈틈이 초록한 자료이고, 게다가 송명희 사후에도 추모의 정을 잊지 못했던 송내희였기 때문에 1846년에 『계산담수』의 완성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3. 『계산담수』의 이본(異本) 고찰

버클리대본 『계산담수』는 권1의 144조목, 권2의 89조목, 권3의 107조목, 권4의 114조목, 권5의 68조목, 권6의 43조목으로 구성되어 총 565조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영남대본 『계산담수』는 권1의 342조목, 권2의 193조목으로 구성되어 총 535조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분량을 비교하면, 버클리대본 『계산담론』은 불분권(不分卷) 1책 186조목, 영남대본 『계산담수』는 2권2책 535조목, 버클리대본 『계산담수』는 6권2책의 565조목이다.[16] 버클리대본 『계산담수』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담수』에 쓰다」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는 6편(編)의 체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버클리대본 『계산담수』 곤책(坤冊)의 맨 처음에는 「군서인용(羣書引用)」이 수록되어 있는데,[17] 이는 『계산담수』를 편술하면서 참고한 서적들을 밝혀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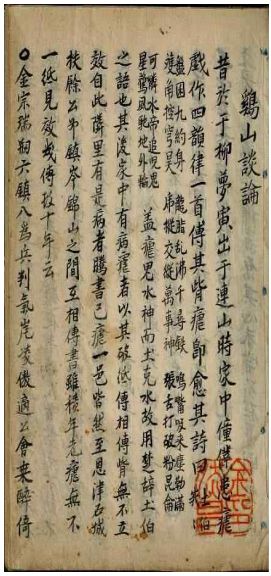
16) 당연히 버클리대본 『계산담수』는 버클리대본 『계산담론』과 영남대본 『계산담수』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17) 〈그림 8〉과 〈그림 9〉 참조.

『고려사(高麗史)』, 『동국통감(東國通鑑)』,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야회통(朝野會通)』, 『조야집요(朝野輯要)』, 『청야만집(靑野漫輯)』, 『대동야승(大東野乘)』, 『연려기술(燃黎記述)』, 『팔도읍지(八道邑誌)』, 『여지승람(輿地勝覽)』, 『후자경편(後自警編)』, 『소화시평(小華詩評)』, 『속산림경제(續山林經濟)』, 『기언(記言)』, 『후청록(鯸鯖錄)』, 『임진록(壬辰錄)』, 『징비록(懲毖錄)』, 『삼관기(三官記)』, 『건거록(巾車錄)』, 『동패(東稗)』, 『율곡어록(栗谷語錄)』, 『우암어록(尤菴語錄)』, 『농암잡저(農巖雜著)』, 『지봉유설(芝峯類說)』, 『보한집(補閑集)』, 『청강쇄어(淸江瑣語)』, 『어우야담(於于野談)』, 『동창문견록(東窓聞見錄)』, 『기재잡록(寄齋雜錄)』, 『동각잡기(東閣雜記)』, 『기묘록(己卯錄)』, 『고사촬요(攷事撮要)』,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돈효록(敦孝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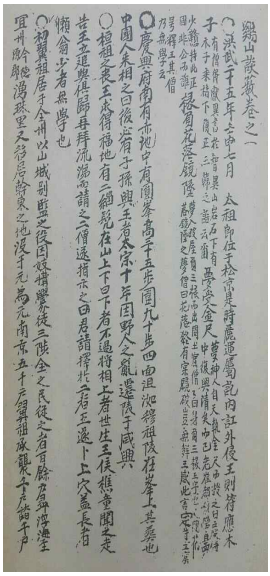
총 34종의 서명(書名)이 보인다. 일반적인 사서(史書)에서부터 야사류(野史類), 야담류(野談類), 지리지(地理志), 시화(詩話), 실기(實記), 어록(語錄), 유서(類書) 등에 이르기까지 송내희는 당대에 열람할 수 있었던 온갖 자료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버클리대본 『계산담론』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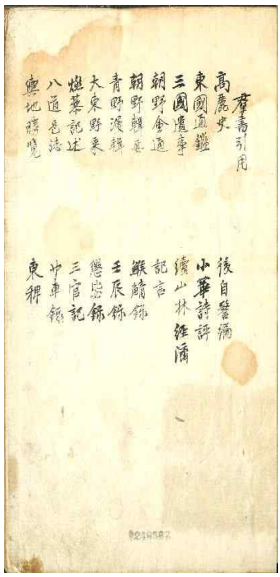
〈그림 5〉 버클리대본 『계산담론』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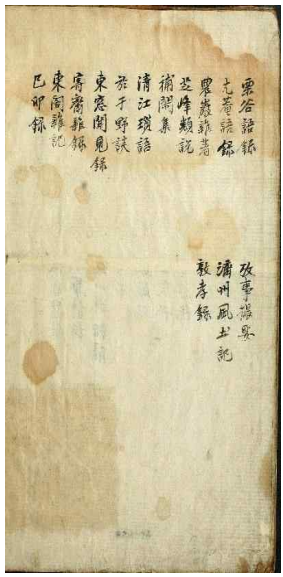
〈그림 6〉 영남대본 『계산담수』 권1



〈그림 7〉 버클리대본『계산담수』 권1



〈그림 8〉 버클리대본『계산담수』 군서인용(羣書引用)



〈그림 9〉 버클리대본『계산담수』 군서인용(羣書引用)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계산담수』의 이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41년에 필사된 버클리대본『계산담론』은『계산담수』의 초고본 형태라 할 수 있고, 그 후 5년이 지난 1846년에 완성된『계산담수』는 또 2종으로 나뉘는데 2권2책의 영남대본과 6권2책의 버클리대본이다. 이 가운데서 버클리대본『계산담수』는 송내희가 언급한 6권의 체재를 따른 점, 수록된 조목도 가장 많다는 점, 인용 서목을 수록한 점, 서문과 인용 서목의 위치가 체계를 갖춘 점[18]에서 선본(善本)이라 할 수 있다.

4.『계산담수』의 성격과 가치

『계산담수』에서의 '계산(溪山)'은 송내희의 고향에 있는 계룡산(鷄龍山)을 가리키고, '담수(談藪)'는 이러저러한 잡다한 기사와 얘기를 한데 모았다는 뜻

18) 앞서 언급했지만 영남대본『계산담수』의 서문은 순서상 521조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버클리대본『계산담수』는 서문은 乾冊의 맨 앞에, 인용 서목은 坤冊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다.

이다. 권1의 서문을 시작으로 권마다 짤막한 인물 기사에서부터 지방의 명소·산천 소개, 행정 구역 변천사, 임진왜란 관련 기사, 중국어와 자국어의 비교, 몽고어와 만주어 풀이, 조공의 문제, 전제(田制)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대소사를 망라하고 있다.

권1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太祖)와 관련된 신이한 일화부터 소개하고 있다. 이씨(李氏)가 왕위에 오른다는 '부응목자(符應木子)', 꿈에서 황금으로 만든 자를 받았다는 '몽수금척(夢受金尺)',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지고 꽃잎이 떨어져 열매를 맺으며 거울이 깨져 소리가 나는 징조로 왕위에 오른다는 '연부화락경타(椽負花落鏡墮)'의 얘기들을 열거한 다음 "모두 비상한 조짐이다[皆非尋常兆朕也]"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후로 권차별 수록된 내용을 보았을 때 시간의 순차, 주제의 연관성 등 엄정한 편집 체재를 의식하고 엮진 않은 것 같다. 인물에 대한 얘기의 경우 김시습(金時習)을 비롯하여 유몽인(柳夢寅), 황희(黃喜), 원효(元曉), 김유신(金庾信), 김극기(金克己), 설총(薛聰), 이제현(李齊賢), 서경덕(徐敬德), 이황(李滉), 이이(李珥), 차천로(車天輅), 정유길(鄭惟吉), 한호(韓濩), 최립(崔岦), 이수광(李睟光), 이정구(李廷龜) 등 수십 명의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일화의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하다. 유몽인이 학질(瘧疾)을 쫓는 희작시(戱作詩)를 지었는데, 그 시가 주변의 마을에까지 전파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유몽인의 시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김시습에 대해 인물평을 가하면서 그의 대표적 시인 「삼각산(三角山)」 시를 수록하였고, 이제현에 대해서는 그의 시문을 고평하면서 「노상(路上)」 시를 수록하였다. 또한 차천로의 시문에 대해서 그의 문사는 호한(浩汗)하고 시는 웅기(雄奇)하다고 평하면서 중국의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크게 칭찬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효·설총 같은 승려들의 기이한 일화와 황희와 같은 훌륭한 재상의 치적을 거론하고 있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인물의 얘기 다음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지리지(地理志) 성격의 기사이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행적 구역의 변천사를 언급하기도 하고, 금오산(金鰲山)·문수산(文殊山)·구월산성(九月山城) 등 명산과 산성에 대해서 지리적 입지와 유래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의 명소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양천(陽川)의 영벽정(暎碧亭), 봉산(鳳山)의 신룡담(神龍潭), 청송(靑松)의 학소암(鶴巢岩), 안협(安峽)의 낙산사(洛山寺), 서산군(瑞山郡)의 여기정(女妓井)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때의 기사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강항(姜沆)의 『건거록(巾車錄)』 등에서 보이는 몇몇 기사들을 발췌하여 전재하기도 하였고, 사천(泗川) 전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순신(李舜臣)의 거북선[龜船]에 대한 전적(戰績)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후반부로 갈수록 소소한 주제의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나열한 예를 들 수 있다. 종방(腫方), 수질(水痣), 설사, 버섯 독 등을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이 부분의 기사들은 모두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금료소초(金蓼小抄)」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 또한 몽고어와 만주어 중에서 몇몇 단어를 들어 어떤 뜻인지를 풀이하고 있다. 예컨대, 몽고어에서 필자치(必闍赤)는 서생(書生)이고, 팔합식(八合識)은 사부(師傅)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만주어에서 애막리(愛莫離)는 중국말의 유숙연(有宿緣)이요, 낙물혼(落勿渾)은 중국말의 몰염치(沒廉恥)요, 예락하(曳落河)란 만주말의 장사(壯士)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또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구외이문(口外異聞)」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문자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피서록(避暑錄)」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19]

우리나라의 방물진공(方物進貢)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전제(田制)의 문제를 치밀하게 거론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전폐(錢幣) 제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문체의 병폐로서 사서의 체식(四書疑體式)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 「문장(文章)」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권6의 끝부분에서는 이례적으로 최치원(崔致遠)에 관한 사적을 대거 수록하고 있다.[20] 형식 또한 다른 기사와는 달리 권점(圈點)을 달아 시작점을 표

19) 『鷄山談藪』에는 이처럼 朴趾源의 『熱河日記』을 참고하여 발췌하거나 전재한 내용이 매우 많은데도, 정작 「羣書引用」에는 『열하일기』가 누락되어 있다.

시하지 않았다. 『지봉유설』의 「제도(制度)」 부문에서 초록한 조목[21]이 끝나면 권점 없이 최치원 관련 조목들이 나온다. 순서대로 「문창공사적(文昌公事蹟)」, 「문창후비문(文昌侯碑文)」이 수록되어 있고, 이후에는 「팔각산시(八角山詩)」 1수, 「풍계도사패옥시(楓溪道士佩玉詩)」 1제2수가 열거되어 있다. 이어서 다시 권점 아래 최치원 관련 기사 2조목이 나오고, 맨 끝에는 정현석(鄭顯奭, 1817-?)이 지은 「정구료배해문(呈舊僚俳偕文)」이 수록되어 있다.

「문창공사적」은 한문소설 「최고운전(崔孤雲傳)」의 일부, 역사적 사실, 민간에서 전승되는 설화 등을 송내희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고운전」의 19세기 수용 양상이나 당대 유행한 최치원 민간 설화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22] 그 다음에 수록된 「문창후비문」은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최학사고운비서(崔學士孤雲碑序)」를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두경의 이 글은 『고운집(孤雲集)』의 「고운선생사적(孤雲先生事績)」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이 「청학동비(靑鶴洞碑)」로 되어 있고 작자가 정홍명(鄭弘溟, 1582-1650)으로 되어 있다.[23] 「청학동비」는 정홍명의 저술인 『기옹집(畸翁集)』과 『기옹만필(畸翁漫筆)』에는 보이지 않고, 「최학사고운비서」와는 글자 출입이 있다.

「최학사고운비서」와 「청학동비」를 비교하면, 시작부분인 "고려, 백제, 신라로 말하자면 나라는 비록 한 지역에 속한다고 하겠지만[曰若高麗百濟新羅, 國雖一域.]"에서부터 중간의 "선성(先聖)의 덕을 사모하여 지금도 제사를 올리니,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알게 한 것은 그 누구의 공이겠는가.[慕先聖

20) 송내희가 최치원에 관한 자료들을 대거 수록한 이유는 아직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1854년(철종5)에 송내희는 장자인 宋恪老의 高山 任所에 방문하였고, 이때 최치원을 모시는 사당인 芝山祠에 들러 奉安告文를 지은 바 있다. 宋來熙, 「文昌侯崔先生奉安告文」, 『錦谷集』 권12. 이를 통해 볼 때, 송내희가 평소 최치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21) 李睟光, 「君道部·制度」, 『芝峯類說』 권3. "富國之術, 在於錢幣, 足兵之策, 在於號牌. 蓋錢幣行則國用自裕, 號牌行則時無幸民, 其利益必大矣. 用錢之議, 起於先王末年, 廷臣獻言, 皆以爲可行而事竟寢. 號牌則頃在壬子, 設廳成籍, 公卿以下, 佩持數月而罷. 我國之習, 不能耐久如此, 惜哉! 故作事者, 非知之難, 行之爲難, 非行之難, 持久爲難."

2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참조할 만하다. 송하준, 「문헌 기록으로 살펴본 〈최고운전〉의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54, 우리문학회, 2017, 67-72면.

23) 鄭弘溟, 「孤雲先生事績·靑鶴洞碑」, 『孤雲集』. "靑鶴洞碑, 鄭弘溟銘. 曰若高麗百濟新羅 (…)"

德, 至今祀之, 使後世知文, 其誰功也?]"까지는 거의 일치하지만, 그 이후부터 끝 부분까지는 글자 출입이 다수 보인다.

> 나는 호량(濠梁)과 광야(曠野)에서 장수(莊叟)가 노닌 것을 생각하였고, 영수(潁水)와 기산(箕山)에서 허유(許由)의 좋은 손님을 꿈꾸었으며, 유향(劉向)이 지은 『열선전(列仙傳)』을 읽었고, 굴원(屈原)이 지은 「원유(遠遊)」를 외웠다. 석문(石門)이 아득히 높으니 고금(古今)을 어루만지면서 길게 탄식하였고, 쌍계(雙溪)가 맑으니 은일(隱逸)의 남은 자취를 찾아보았다. 만물을 무하(無何)에 부치니 바로 한 마리의 말이고, 진인(眞人)의 헤아릴 수 없음을 생각하니 바로 용과 같은 분이로다.[24]

> 나는 호량(濠梁)의 추수(秋水)에서 장생(莊生)의 흉금을 생각하였고, 영천(潁川)의 청풍(淸風)에서 허유(許由)의 기상을 꿈꾸었으며,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을 읽었고 굴원(屈原)의 사부(辭賦)를 외웠다. 석문(石門)이 아득히 높으니 고금(古今)을 어루만지면서 길게 탄식하였고, 쌍계(雙溪)가 맑으니 은일(隱逸)의 남은 자취를 찾아보았다. 선생의 풍도는 산처럼 높고 물처럼 유장하도다.[25]

정홍명의 제자인 황위(黃暐, 1605-1654)의 문집에는 「최고운비서(崔孤雲碑序)」라는 작품이 있는데,[26] 정두경의 「최학사고운비서」와 동일한 글이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로 볼 때, 우선 『고운집』 소재 「청학동비」는 정홍명이 지은 것이 아니라 정두경이 지은 것이고, 정홍명의 제자인 황위 역시 이 작품을 정홍명이 지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아마도 정두경의 호가 '동명(東溟)'이기 때문에 『고운집』의 편찬자가 '정동명(鄭東溟)'을 '정홍명(鄭弘溟)'으로 착각하여 잘못 기록한 듯하다. 또한 정두경의 「최학사고운비서」와 『고운집』 소재 「청학동비」 사이에 글자의 출입이 많은 것은 정두경이 비석에 글을 새길 적에 재차 글을 수정하거나 글자 수를 증감한 듯하다.

---

24) 鄭斗卿, 「崔學士孤雲碑序」, 『東溟集』 권10. "余濠梁曠野, 憶莊叟之逍遙, 潁水箕山, 夢許由之嘉客, 讀劉向列仙之傳, 誦屈原遠游之辭. 石門嵯峨, 撫古今而長歎, 雙溪淸淺, 訪隱逸之遺蹤. 付萬物之無何, 是一馬也, 想眞人之不測, 其猶龍乎?" *『鷄山談藪』 권6에 수록된 「文昌侯碑文」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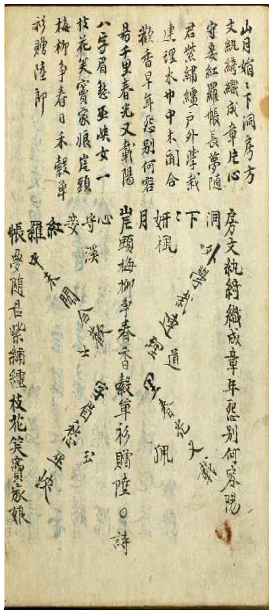
25) 鄭弘溟, 「孤雲先生事績・靑鶴洞碑」, 『孤雲集』. "余濠梁秋水, 憶莊生之胷襟, 潁川淸風, 夢許由之氣像. 讀劉向傳, 誦屈原辭, 石門嵯峨, 撫古今而長歎, 雙溪淸淺, 訪隱逸之遺蹤. 先生之風, 山高水長."

26) 黃暐, 「崔孤雲碑序」, 『塘村集』 권4.

「문창후비문」이 끝나면 “이상은 최문창에 대한 것[右崔文昌]”이라는 기록과 함께 「팔각산시(八角山詩)」라는 제목의 보탑시(寶塔詩) 1수(首)가 수록되어 있다.27)



〈그림 10〉 버클리대본『계산담수』 팔각산시(八角山詩)



〈그림 11〉 버클리대본『계산담수』 패옥시(佩玉詩) 1수



〈그림 12〉 버클리대본『계산담수』 패옥시(佩玉詩) 2수

보탑시는 시구가 더해짐에 따라 한 글자씩, 혹은 두 글자씩 추가하여 전체 구조가 마치 층층의 보탑(寶塔) 모양을 이루는 시체(詩體)이다. 그래서 보탑시를 층시(層詩)라고도 한다. 보탑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계속해서 창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작가만 거론하면, 고려시대의 이규보(李奎報, 1168-1241), 혜심(慧諶, 1178-1234), 충지(冲止, 1226-1292), 조선시대의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하진(河溍, 1597-1658), 황호(黃昊, 1604-1656), 신흠(申欽, 1566-1628), 장유(張維, 1587-1638), 이학규(李學奎, 1770-1835),

27) 〈그림 10〉 참조.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등을 꼽을 수 있다.[28] 일반적으로 보탑시를 해석하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계산담수』 소재 「팔각산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보탑시와 형태는 같지만, 해석하는 방식은 파격(破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의 보탑시 형태를 작품의 의미에 맞도록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되, 같은 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

「팔각산시(八角山詩)」

寺 花
始 落
雲來 水茂
歸尋 綠林
鳥片片 猿沈沈
含蟲返 抱樹吟
僧歸不歸 路蒼苔深

절의 꽃이
비로소 떨어지네
구름이 오고 물은 깊으니
푸른 숲속으로 들어가네
새들은 뿔뿔이, 원숭이는 깊은 곳에서
벌레를 물고 돌아오고, 나무를 안고 울어대네
산승은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길가의 푸른 이끼 수북하네

그런데 이 보탑시의 흥미로운 점은 여덟 개의 '산(山)' 글자를 구(句)마다 앞에 넣고 운자(韻字)에 맞추어 배열하면 아래와 같은 5언율시의 근체시가

28) 李奎報, 「家有衆鷄匝宅啄蟲予惡而斥之因有詩【自三言至七言】」, 『東國李相國後集』 卷4; 慧諶, 「次金城慶司祿從一至十韻」, 『無衣子詩集』 上; 冲止, 「賦月從一至七」, 『圓鑑國師集』; 金誠一, 「次上使一字至十字格」, 『鶴峯集』 卷2; 河澋, 「次成而振贈鼎台洞一字至七字體韻」, 『台溪集』 卷2; 黃杲, 「詠月效一七令體」, 『漫浪集』 卷2; 申欽, 「一言至十言賦閑興」, 『象村稿』 卷20; 張維, 「春日苦雨自一字至十字」, 『谿谷集』 卷34; 李學逵, 「蟬【一言至十言】」, 『洛下生集』 冊3; 李裕元, 「一字至十字詩次張谿谷韻」, 『嘉梧藁略』 冊2.

완성된다. 1-2구는 위에서 아래로[↓], 3-8구는 2구씩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독특한 형식이다. 마치 팔각산(八角山)의 여덟 개 산을 굽이돌아 산사(山寺)를 찾아가는 산행의 경로를 따라가는 듯하다.

산 속의 절을 비로소 찾아오니
산의 꽃이 무성한 숲속에 떨어지네
산의 구름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산의 물은 푸른 빛깔 짙어지네
산의 새는 벌레를 물로 돌아오고
산의 원숭이는 나무를 안고 울어대네
산의 승려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산의 길에는 푸른 이끼가 수북하네

山寺始來尋, 山花落茂林. 山雲歸片片, 山水綠沈沈.
山鳥含蟲返, 山猿抱樹吟. 山僧歸不歸, 山路蒼苔深.

보탑시는 역대의 문인들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창작한 희작시(戱作詩)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팔각산시」에 뒤이어 수록된 「풍계도사패옥시(楓溪道士佩玉詩)」 1제2수는 매우 희귀한 옥련환체(玉連環體)의 희작시이다.[29] 옥련환(玉連環)은 본래 여러 개의 옥을 연결시켜 만든 고리를 가리킨다. 옥련환체는 여러 개의 옥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앞의 시구 혹은 앞의 시의 마지막 글자 가운데 일부를 그 다음 시구 혹은 다음 시의 첫 글자로 삼는 형식인데, 일반적으로 7언율시로 짓는다. 또한 다음 시구의 첫 글자가 앞 시구의 맨 끝에 감춰져 있다고 하여 장두체(藏頭體)라고도 한다. 그런데 7언율시의 옥련환체에 시구를 추가하여 7언배율로 짓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옥패시(玉佩詩) 혹은 옥패문(玉佩文)이라고 한다. 유본정(柳本正, 1807-1865)이 만든 일종의 놀이책인 『팔선와유도(八仙臥遊圖)』에 수록된 「강선루칠배옥패문(降仙樓七排玉佩文)」이 바로 7언배율로 지은 옥패문이다.[30] 『계산담수』에 수록된

29) 〈그림 11〉과 〈그림 12〉 참조

「풍계도사패옥시」 2수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은 옥패시라 할 수 있다. 〈그림 11〉은 2수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상단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7언배율의 시를 기록하고, 하단에는 옥련환체의 방식에 맞게 시를 배열하고 있다. 예컨대 1구의 마지막 글자 '房'의 일부분인 '方'이 2구의 첫 글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3구의 마지막 글자 '帳'의 일부분인 '長'이 4구의 첫 글자가 되는 방식이다. 또한 11구의 첫 글자인 '嵓'에서 윗부분인 '山'이 1구의 첫 글자가 되고 아랫부분인 '片'이 3구의 첫 글자가 된다. 6구의 마지막 글자인 '香'에서 윗부분인 '禾'는 12구의 첫 글자가 되고 아랫부분인 '日'은 11구의 첫 글자가 되며 심지어 '香'을 구성하는 일부인 '八'이 9구의 첫 글자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키면 〈그림 11〉과 같이 총 12구의 시구들이 사방팔방으로 이어진다. 7언배율로 지은 옥련환체 패옥시는 7언율시 장두체 형식에서 더욱 진보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기록한 행위를 통해 송내희의 유별난 관심사와 남다른 호기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후손인 송내희는 정통적인 유현(儒賢)의 전범으로 칭송을 받았다.[31] 특히 성리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어 만년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저술 활동에 매진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학자적 면모와는 사뭇 다른 젊은 시절 송내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계산담수』와 같은 필기야담집이다. 기실 『계산담수』 안에는 성리학을 위시한 정통 학문 분야에 대한 조목은 찾아보기 힘들다. 외려 정통 학문만 제외한 다른 지식정보들을 여과 없이 망라하여 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듯하다. 근엄하고 진지한 유학 공부에 한창인 시절, 송명희의 서가(書架) 후미진 곳에서 온갖 패서(稗

30) 『八仙臥遊圖』에 수록된 「降仙樓七排玉佩文」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종묵, 「조선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170-174면.

31) 『高宗實錄』 1867년(고종4) 9월 13일 기사. "祭酒 宋來熙가 卒하였다. 傳敎하기를 '故 좨주 송내희는 나이 많은 儒賢으로서 성대히 朝野의 모범이 되었다.'[祭酒宋來熙卒, 敎曰, 故祭酒宋來熙, 以耆舊儒賢, 蔚然爲朝野之矜式.] 하였다."; 蘇輝冕, 「祭錦谷宋公文」, 『仁山集』 권15. "아, 선생이여 정신은 편안하고 기운은 안정되니 타고난 품성이 한결같이 어찌 이리도 고상한가. 말은 간결하고 의리는 올바르니 학문의 조예가 또 어찌 이리도 깊은가.[嗚呼先生, 神安氣定, 天之所稟, 一何高也? 辭簡義正, 學之所造, 又何深也?]"

書)와 잡록(雜錄)을 뒤적이다 번뜩이는 내용을 발견하면 깨알 같은 글씨로 종이에 기록하고 있는 송내희의 모습이 상상된다. 현전하는 송내희의 문집인 『금곡집』을 통해 『계산담수』라는 저술의 존재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그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권6의 끝부분에 수록된 최치원과 관련된 일련의 조목들은 최치원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학술 자료가 될 수 있고, 뒤이어 수록된 보탑시와 패옥시는 잡체시(雜體詩)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金誠一, 『鶴峯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48, 민족문화추진회, 1988.
柳本正, 『八仙臥遊圖』(청구기호 가람古 915.2-P187), 규장각.
蘇輝晃, 『仁山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續 131, 한국고전번역원, 2012.
宋來熙, 『鷄山談論』(청구기호 3480.3.2200),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_____, 『鷄山談藪』(청구기호 3480.3.2204),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_____, 『鷄山談藪』(청구기호 古도911.0092), 영남대 도서관.
_____, 『錦谷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申 欽, 『象村稿』,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71,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裕元, 『嘉梧藁略』,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315, 민족문화추진회, 2003.
李學逵, 『洛下生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90, 민족문화추진회, 2002.
張 維, 『谿谷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92, 민족문화추진회, 1988.
鄭斗卿, 『東溟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00, 민족문화추진회, 1996.
河 澔, 『台溪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01, 민족문화추진회, 1988.
黃 暐, 『塘村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續 30, 민족문화추진회, 2006.
黃 屋, 『漫浪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03, 민족문화추진회, 1988.

권진옥, 「橘山 李裕元의 學問 性向과 類書筆記 編纂에 관한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19세기 필기야담집 『계산담론(鷄山談論)』·『계산담수(鷄山談藪)』의 성격과 가치」, 『고전과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0, 387-417면.
김명호 외,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학자원, 2011.
송하준, 「문헌 기록으로 살펴본 〈최고운전〉의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54, 우리문학회, 2017, 61-84면.
이종묵, 「조선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157-188면.
정명기, 『한국 야담의 자료와 전승』, 보고사, 2019.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2021.3.31. 검색).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2021.3.31. 검색).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ttp://kostma.korea.ac.kr(2021.03.31. 검색).
권진옥, 「『계산담론(鷄山談論)』 해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Z.1841.4161-20090728.RICH_0483(2021.3.31. 검색).
_____, 「『계산담수(鷄山談藪)』 해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Z.1846.0000-20090728.RICH_0484(2021.3.31. 검색).